

다니엘서 - 번호 101

언약의 사자: 정화에서 숙청까지

Jeff Pippenger

2024-02-29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확증하신 그 한 주간은 그분의 침례로부터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던 때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신 때까지의 기간을 상징했다.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하여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를 보았다. 그는 말하였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인자를 내가 보노라. 그러자 그들은 큰 소리로 외치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다. 증인들은 사울이라 하는 한 청년의 발 앞에 자기들의 겹옷을 벗어 놓았다. 그들이 스테반을 돌로 치는 동안 스테반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말하였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쳤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그는 잠들었다. 사도행전 7:55-60.

스테반이 돌에 맞고 미가엘이 일어섰을 때,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전해졌는데, 그때까지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천사가 이르되, '그가 한 이레[7년] 동안 많은 사람과 언약을 굳게 하리라.' 구주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뒤 7년 동안 복음은 특히 유대인들에게 전파되도록 되어 있었으니, 그중 3년 반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전하셨고, 그 후에는 사도들이 전하였다. '그가 그 이레의 한가운데에 제사와 예물을 그치게 하리라.' 다니엘 9:27. 서기 31년 봄, 참된 희생이신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드러지셨다. 그때 성전의 휘장이 둘로 찢어져 희생 제사 제도의 거룩함과 의미가 떠났음을 보여 주었다. 땅의 제사와 예물이 그칠 때가 이르렀다.

그 한 주간—곧 일곱 해—은 서기 34년에 끝났다. 그때 스테반을 돌로 쳐 죽임으로써 유대인들은 마침내 복음 거절을 확정지었다. 박해로 인해 각지로 흩어진 제자들은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파하였다'(사도행전 8:4).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박해자 사울이 회심하여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되었다. 시대의 소망, 233.

서기 34년에 거룩한 한 주간(2,520일)이 끝났고, 고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혼을 당했으며 그들의 은혜의 기간은 완전히 끝났다. 그 시점부터 고대 이스라엘이 언약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에 대한 보응은 하나님의 집행적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자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멸망을 서기 66년부터 70년에 이르는 포위와 파괴의 때까지 미루셨다.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확증하신 그 '한 이레'를 지목한 다니엘 9장의 구절들은 또한 이교 로마(장차 올 통치자)가 도성과 성소를 멸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자비로, 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사역하신 7년 기간 동안, 고대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복음을 듣고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다.

예루살렘의 파멸이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 선고된 후 거의 40년 동안, 주께서는 그 도성과 그 민족에 대한 심판을 미루셨다. 그의 복음을 거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인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놀라웠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나타냈다. '찍어 버리라. 어찌하여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누가복음 13:7)라는 명령이 이미 내려졌으나, 하나님의 자비는 그것을 아직 잠시 더 남겨 두셨다.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품성과 사역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다. 또한 자녀들은 부모가 거부한 기회와 빛을 누리거나 받지 못했다. 사도들과 그 동역자들의 전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에 빛을 비추실 것이며, 그들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뿐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도록 허락을 받게 될 것이었다. 자녀들은 부모의 죄 때문에 정죄되지 않았다. 그러나 부모에게 주어진 모든 빛에 대한 지식을 가진 상태에서 자녀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추가적인 빛까지 거절했을 때, 그들은 부모의 죄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자신들의 죄악의 분량을 채웠다.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오래 참으심은 유대인들의 완고한 회개 거부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을 향한 미움과 잔혹함 속에서 자비의 마지막 제안을 거절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보호를 거두시고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억제하시던 능력을 거두셨으며, 그 민족은 자신들이 선택한 지도자의 지배에 맡겨졌다. 그 민족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멸시했는데, 그 은혜는 그들로 하여금 악한 충동을 제어할 수 있게 했을 것이다. 이제는 그 악한 충동들이 도리어 그들을 정복했다. 사탄은 인간 영혼의 가장 격렬하고 가장 비천한 충동들을 부추겼다. 사람들은 이성을 사용하지 않았고, 이성의 범위를 넘어 충동과 맹목적 분노에 지배되었다. 그들의 잔혹함은 사탄적이 되었다. 가정과 국가를 막론하고, 최고 계층에서 최하위 계층에 이르기까지, 의심과 시기와 증오와 다툼과 반역과 살인이 난무했다. 어디에도 안전은 없었다. 친구와 친족이 서로를 배신했다. 부모는 자녀를 죽였고 자녀는 부모를 죽였다. 백성의 통치자들은 자신을 다스릴 힘조차 없었다. 억제되지 않은 충동들이 그들을 폭군으로 만들었다. 유대인들은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정죄하기 위해 거짓 증언을 받아들였다. 이제는 거짓 고발이 그들 자신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행위로 그들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고 말해 온 셈이었다. 이사야 30:11. 이제 그들의 바람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지 않았다. 사탄이 그 민족의 머리에 섰고, 최고의 정치적 권위와 종교적 권위가 그의 영향력 아래 놓였다. 위대한 논쟁, 27, 28.

언약의 사자로서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오직 유대인들과만 상대하셨다. 서기 34년에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을 때, 그때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로 갔고, 하나님의 집행적 심판의 때가 임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로 그 시점을 약 40년 동안 유예하셨다.

말라기 3장의 예언을 성취하시며 언약의 사자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을 두 번 정결케 하셨다. 그분은 당시 외면당하고 이혼당하고 있던 언약 백성과 또한 뒤에 새로운 택한 백성이 될 자들을 위해 특별히 구별된 기간 동안 그렇게 하셨다. 그 기간이 끝나자 하나님의 집행 심판의 때가 시작되었다. 세례 요한은 그분이 언약을 맺으실 새로운 택한 백성을 일으키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 길을 예비한 사자였다.

두 번의 성전 정화는 영혼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리키는 교훈적 본보기였다. 말라기 3장에서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임하실 때, 그는 레위 자손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 정련하셔서, 옛날과 같이 제물을 드리게 하신다.

그러나 그의 오시는 날을 누가 능히 감당하리요? 그가 나타나실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정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으니라. 그는 은을 정련하고 깨끗하게 하는 자처럼 앉아서 레위의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처럼 그들을 연단하여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게 하리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예물이 옛날과 옛 해와 같이 여호와께 기쁨이 되리라. 말라기 3:2-3.

말라기 3장과 두 차례의 성전 정결은 언약의 사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레위 자손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나타낸다. 레위 자손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금을 정련하는 것으로 상징된다.

요양원에서 어떤 영향력이라도 가진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함, 자아를 낮춤, 그리스도의 영의 귀한 감화에 마음을 여는 일이 있어야 한다. 불로 연단된 금은 사랑과 믿음을 상징한다. 많은 이들에게는 사랑이 거의 결핍되어 있다. 스스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마음이 그들의 큰 필요를 보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께 날마다 회심하는 일, 신앙생활에서 새롭고 깊은 날마다의 체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증언, 4권, 558쪽.

말라기 3장과 성전의 두 차례 정화는, 언약의 사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지혜로운 자들, 곧 레위의 자손들 가운데 지식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이해의 완성을 나타낸다. 레위의 자손들의 완전함은 은을 정제하는 것으로 상징된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이라 흠 도가니에서 일곱 번 연단한 은과 같도다. 시편 12:6

언약의 사자는 레위 자손을 은과 금처럼 정결하게 하려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결하게 한다.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곧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받는 것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17.

세례 요한은 말라기 3장의 첫 성취에서 언약의 사자를 위한 길을 예비한 사자였으며, 그와 관련한 그의 기별은 본질적으로 네 가지였다. 그의 사역에는 언약의 사자가 이루실 정결의 사역을 분별하여 지적하는 일과, 그렇게 이루어진 정결의 사역이 타작마당을 쓸어내는 행위로 표상된다는 사실을 밝히는 일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이전에 선택받은 백성이 그때 제쳐지고 있는 중임을 밝혀 보였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라오디게아 기별을 전하여 그들의 죄와 그들의 조상들의 죄를 드러냈다. 그는 이 모든 현실을 “다가올 진노”라는 맥락 속에 두었다. 길을 예비한 그 사자의 사역은, 제쳐지고 있던 그 백성의 교육 제도에서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는 자에 의해 수행되는 사역을 나타냈다.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 자신의 길을 예비할 사자를 일으키셨다. 그는 죄를 책망하고 규탄하는 데 있어 조금도 흔들림 없는 증언을 세상에 전해야 했다. 누가는 그의 사명과 사역을 알리며 이렇게 말한다. “그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그분 앞서 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의로운

이들의 지혜에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예비된 백성을 준비하게 하리라”(누가복음 1:17).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왔고, 그들을 향해 그가 말했다. '독사의 자식들아,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였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으로 두고 있다"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실 수 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베어져 불에 던져진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를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크시니,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 자격도 없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실 것이다. 키가 그분의 손에 있으며, 그분은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시고 알곡을 곡간에 모으실 것이나,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실 것이다' (마태복음 3:7-12).

요한의 음성은 나팔처럼 높이 울려 퍼졌다. 그의 사명은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이사야 58:1)였다. 그는 사람에게서 배운 학식이 없었다. 하나님과 자연이 그의 스승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보다 앞서 길을 예비할 자, 곧 옛 선지자들처럼 담대히 목소리를 높여 타락한 민족을 회개로 부를 사람이 필요했다. Selected Messages, 제2권, 147, 148쪽.

윌리엄 밀러는 언약의 사자를 위하여 길을 예비한 두 번째 사자였으며, 밀러의 인격과 사역은 세례 요한에 의해 예표되었다.

"수천 명이 윌리엄 밀러가 전한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그 기별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의 종들이 세움을 받았다. 예수의 선구자인 요한처럼, 이 엄숙한 기별을 전한 이들은 나무 뿌리에 도끼를 대고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초기 저술, 233.

그리스도 당시 트집을 잡던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거짓된 메시지를 믿도록 이끌렸다. "메시아"는 그리스어 단어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이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를 전하신 것(그는 만유의 주이시다). 그 말씀은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요한이 전한 세례 이후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는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36-38.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모두 "기름부음 받은 자"를 의미한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침례 때 기름부음을 받으셨으므로, 엄밀히 말해 그분은 침례를 받기 전까지 메시아도 그리스도도 아니셨다. 그분의 침례는 예언적으로 1840년 8월 11일에 내려온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의 강림과 일치하며, 또한 2001년 9월 11일에 내려온 요한계시록 18장의 힘센 천사의 강림과도 일치한다. 이 세 가지 예언적 이정표는 늦은비 가운데 성령의 현현을 지목한다.

시비를 거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문자 그대로의 지상 왕국을 세울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 곧 거짓된 예언 메시지를 고수했다. 그것은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는 거짓된 메시지였다.

윌리엄 밀러의 메시지에는 두 가지 주요 요소가 있었다. 첫째는 성소의 정결을 지목하는 때에 관한 예언들을 적용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개신교인들이 믿는 경향이 있던 천년왕국에 대한 가톨릭의 해석을 그가 거부한 것이었다. 평화와 번영의 천 년으로 규정된 그 잘못된 천년왕국관은 시비를 일삼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잘못된 견해로 이미 나타나 있었다.

그 두 증인은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오시도록 예비하는 사자의 역사가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성취되는 때에,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는 거짓 늦은 비 기별을 지목한다. 그 거짓 늦은 비 기별은 '평안과 안전'의 기별로 규정되며, 이는 '다가올 진노'가 임할 때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선포했던 세례 요한의 기별과 대조된다. 또한 가톨릭이 가르치는 것처럼 천 년의 평화는 없을 것이라고 한 밀러의 지적을 통해서도 드러나는데, 주께서 재림하실 때 그 오심의 광채로 땅을 멸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환난을 겪고 있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을 주실 것이니,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시되,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보응하실 때라. 그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리라. 데살로니가후서 1:7-9.

언약의 사자가 새로운 선택된 백성과 언약을 맺도록 준비시킨 처음 두 사자는, 라오디게아적 재림운동의 제3세대에서 정식화된 거짓된 '평안과 안전' 늦은비 기별이, 제4세대의 라오디게아적 재림운동이 셋째 화로 표상된 이슬람의 역할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도록 사탄에 의해 고안되었음을 보여 준다.

레위의 자손으로 대표되는 이들을 위해 이루어지는 정결의 과정에서, 세례 요한의 뒤에 오시는 이는 그의 손에 있는 키로 자기 타작마당을 철저히 쓸어 '정결하게' 하실 것이었다. 그 일은 그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마태복음 3:12. 이것은 정결하게 하시는 때들 가운데 하나였다. 진리의 말씀에 의해 쪽정이가 알곡에서 분리되고 있었다. 책망을 받아들이기에는 그들이 너무도 허영에 차 있었고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겸손한 생애를 받아들이기에는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였으므로, 많은 이들이 예수에게서 돌아섰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여전히 같은 일을 하고 있다. 가버나움 회당에 있던 그 제자들이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영혼들은 시험을 받고 있다. 진리가 마음에 절실히 적용될 때, 그들은 자기들의 생애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음을 본다. 그들은 자신 안에 전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깨닫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그 일을 기꺼이 떠맡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가 드러날 때 그들은 분노한다. 그들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고 수군거리며 예수를 떠난 제자들처럼, 실족하여 떠나간다.” 시대의 소망, 392.

늦은 비의 기별은 하박국 2장의 '변론'이며, 알곡과 쪽정이를 가르는 진리의 말씀이다. 그 분리는 곧 언약의 사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가려내는 역사이다. 밀러주의자들의 역사에서, 다니엘서 8장 14절의 기별은 처음에 실패했을 때 가려냄을 일으켰고, 그 결과 하박국 2장의 지체의 때와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를 가져왔다. 1844년 10월 22일에 한밤중 소리의 기별이 마침내 성취되었을 때, 더욱 큰 가려냄이 일어났다. 그때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임하여 최종적인 가려냄과 정결케 하심을 시작하였다. 세 차례의 가려냄과 정결 가운데 처음 두 번을 통과했던 그 운동은 세 번째에서 실패하여 1863년에 라오디게아의 광야로 보내졌다.

밀러파 역사에서 개신교인들은 먼저 진리의 말씀으로 정결케 되었고, 그 후 셋째 시험의 기별이 도래하자 첫째 천사 운동도 정결케 되었다. 그러나 1798년부터 1844년까지 46년 동안 밀러파 성전의 건축자였던 이들은, 열 처녀의 비유를 완전히 성취했음에도, 1844년 10월 22일에 도래한 셋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 아래 신랑을 맞이하러 나아갔던 많은 이들이 셋째, 곧 세상에 주어질 마지막 시험의 기별을 거절하였고, 마지막 호소가 있을 때에도 비슷한 입장이 취해질 것이다.

이 비유의 모든 점은 면밀히 연구되어야 한다.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들이나 미련한 처녀들 가운데 하나로 표상된다. Review and Herald, 1899년 10월 31일.

1844년 10월 22일 셋째 천사가 임하면서 시작된 예언적 역사는 실패였고, 1863년의 반역으로 끝났다. 1850년까지 화이트 자매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기록했다.

주님께서 1월 26일에 내게 환상을 보여 주셨다. 나는 그것을 전하려 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 몇몇이 어리석고 잠들어 있으며, 겨우 반쯤 깨어 있을 뿐이라 우리가 지금 어떤 때에 살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리고 '먼지 빗자루'를 든 '사람'이 들어와 있었고, 어떤 이들은 쓸려 나갈 위험에 처해 있었다. 나는 예수님께 그들을 구해 주시고, 그들에게 조금만 더 말미를 주셔서, 그들이 자신들의 무서운 위험을 보고 영원히 너무 늦기 전에 준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천사가 말하였다. '파멸이 거대한 회오리바람처럼 몰려오고 있다.' 나는 천사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소유에 집착하여 그것들과의 끈을 끊고 그것들을 바쳐 사자들이 영적 양식이 없어 죽어 가는 굶주린 양들을 먹이러 가는 길을 서두르게 하려 하지 않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나는 현재의 진리가 없어 죽어 가는 가련한 영혼들과,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는,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어떤 이들을 보았을 때, 그 광경이 너무도 고통스러워 천사에게 그것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간청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대의가 그들의 재산 일부를 요구할 때, 예수께 나아왔던 그 청년처럼[마태복음 19:16-22.], 그들이 근심하며 떠나는 것을 보았고, 머지않아 밀려드는 재앙이 지나가 그들의 소유를 모조리 쓸어 가 버릴 것이며, 그때가 되면 세속의 재물을 희생하고 하늘에 보화를 쌓기에는 너무 늦을 것임을 보았다." Review and Herald, April 1, 1850.

1850년에 먼지술을 든 남자는 이미 와 있었다. 1844년 10월 22일,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왔고, 그는 레위 자손을 정화하고 정결하게 하는 일을 시작했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오늘날 영혼들은 시험과 시련을 받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버린 자들이 밟았던 바로 그 길을 밟고 있다. 말씀으로 시험될 때 그들은 거룩하신 스승을 거절한다. 그들의 삶이 진리와 의에 조화되지 않는다고 책망을 받으면, 그들은 구주에게서 돌아서며, 그들의 결정은 실족한 제자들의 경우와 같이 결코 반복되지 않는다. 그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 이리하여 '그의 손에 키가 있으며,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시고, 자기의 밀을 곡간에 모으실 것이다'라는 말씀이 성취된다. 시대의 징조, 1901년 5월 15일.